

1차

-논술: 20점

-교육과정: 86.33(컷+7.33)

2차

-면접: 38.67(-1.33)

-수업실연: 28.2(-1.8)

-수업나눔: 28 (-2)

=총점: 181.2(컷+10.07)

<1차>

1. 스터디

저는 해실이, 논술, 개론, 각론, 안전, 법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는 매일 진행하였고 해실이, 개각론 한부분을 말해보는 구술 스터디였습니다.

먼저 해실이를 일주일안에 전부 볼 수 있도록 부분을 나누고 매일 구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해실이 스터디를 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입에 안붙고 외워지지 않아서 거의 책을 보고 읽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 수록 암기가 되어가는 정도가 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해실이를 보고 익히는가 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개각론은 범위가 워낙 많고 양도 많기 때문에 서서히 양을 늘려갔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공부해올 수 있는 정도로 분량을 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론의 한부분씩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개론의 발달파트 전체 이렇게 분량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양으로 진행하였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고 암기가 되지 않았다는 자존감만 떨어졌기 때문에 분량은 차차 늘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개각론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 정의를

말해보거나 각 단계를 이해한 나름대로 설명해보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도 최대한 매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논술 스터디 일정 예시입니다.

|   |                           |
|---|---------------------------|
| 월 | 문제1 쓰기->피드백               |
| 화 | 문제1 고쳐쓰기                  |
| 수 | 문제2 쓰기->피드백/ 문제1 고쳐쓴것 피드백 |
| 목 | 문제1 고쳐쓰기/ 문제2고쳐쓰기         |
| 금 | 문제2 고쳐쓴 것 피드백             |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일주일에 총 논술문제 2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에서는 민쌤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고쳐쓰기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고쳐쓰기를 하면 시간을 많이 걸리지만 나의 논술에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원의 좋은 표현이나 민쌤께서 올려주신 예시자료를 보고 좋은 표현은 꼭 기억하거나 표시해두고 다음 논술에 사용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논술은 시험장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걱정스러운 과목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술술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논술을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쓰다 보면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러한 서론 결론을 써야겠다 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법 문제를 매일 만들어서 네이버 밴드에 올리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안전과 법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는 스터디를 진행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안전과 법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한번에 암기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안전과 법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백지

백지쓰기를 했던 공부는 고시문, 7대안전, 아동복지법 안전 입니다.

먼저 고시문암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글자를 통으로 암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으므로 일주일동안 고시문을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분량을 나누어 백지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월요일은 신문건, 화요일은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분량을 나누었습니다. 백지쓰기를 할 때는 그냥 보고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암기해보고 틀리더라도 최대한 암기한 대로 써본후에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틀리더라도 이를 계속 반복하여 진행하다보면 매주 암기되는 부분이 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는 고시문 전체를 하루에 백지쓰기를 해볼 수 있도록 분량을 늘려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암기는 고시문 암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분량으로 나누어 매일 꾸준히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안전은 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정리노트

저는 저만의 정리노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총 두가지의 정리노트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설명없이 단계, 요소를 단순암기하는 노트, 또 하나는 서술형으로 정해해둔 노트입니다.

먼저 단순암기노트는 아직 암기하지 못한 단계나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마다 추가하여 암기하기 위해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이를 암기하기 위해 저는 앞글자를 따서 저만의 말을 만들어 암기하였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말을 만들고 그것을 노트에 적어둠으로써 암기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정리노트는 민쌤의 문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만든 노트입니다. 문풀을 풀다보면 정말 서술형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쓴 서술형이 맞았는지, 민쌤의 예상답변과 어떤 것이 다른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최대한 감점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쓰기 위해서는 민쌤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억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풀을 풀 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나, 내가 계속 틀리는 답변, 출제될 것 같은 문제가 있으면 이를 적어두고 민쌤의 답변을 활용하여 저의 표현으로 조금 수정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의 정의를 개론, 각론서의 문장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문장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1차시험에서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제가 서술형에서 거의 감점이 되지 않았던 요인 중의 하나가 이 서술형 정리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정리노트는 따로 시간을 내서 암기한 것이 아니라 밥먹을 때, 스터디카페를 가는 길에 들고 다니면서 꾸준히 암기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기보다 틈틈이 시간날때 또는 집중이 안될 때 정리를 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리노트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론 각론서를 복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기출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습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기출문제를 풀 때 출제된 이론 외에도 지문에서 다른 이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어보았습니다.

또한 기출된 이론을 책에 표시를 해두며 어떤 것이 출제되었고 어떤 것이 출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지 예상해보았고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고 적용된 이론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백지쓰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복습이 정말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2차 >

### 1. 면접

먼저 지역별 시책을 꾸준히, 최대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에는 다양한 시책이 올라와있을 텐데 이를 공부하면서 지역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책을 읽으면서 내가 교실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i-누리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수사례를 읽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상하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시책을 활용하여 저만의 방식으로 따로 정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관련 문제가 나올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 학교자치에 관해 나올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 등 나름의 주제별로 단어를 정리해두고 공부하면 답변을 할 때 활용하기 편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한 나의 면접을 복기해보고 함께 스터디를 했던 스터디원들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좋은 답변이 있다면 기록해두었습니다. 면접을 복기할 때는 영상을 찍고 그것을 보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면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영상을 보면 나의 부족한 점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 수업실연

수업실연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문제가 있다면 풀어보고 마지막에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놀이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직접 만들고 구상하였습니다. 조건을 만들 때에도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최악의 조건들은 많이 넣어서 연습해보았습니다. 연습할 때는 수업이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해봄으로써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실연 또한 영상을 찍고 복기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수업실연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할 요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 갈등, 혼자놀이하는 유아 등 이러한 요소를 조건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가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어떻게 이를 수업에서 표현할 것인지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업실연 복기를 할 때는 어떤 발문이 협력을 나타내는 것인지, 갈등상황인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고 부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3. 수업나눔

수업나눔을 위해서는 더 많이 스스로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수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업실연에서 반드시 추가하고자 할 요소들을 정할 때에 수업나눔을 고려하고 추가한다면 수업나눔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수업실연을 할 때에 이부분을 수업나눔에서 이야기해야 겠다 라고 생각을 미리 하고 수업실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을 구상하는 시간동안에서도 수업나눔에 답변하고자 하는 답을 구상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수업나눔에 활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수업나눔에서는 만능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고려한 놀이중심요소를 말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떤 요소를 말할 것인지 세가지 이상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수업나눔 문제를 하면서 요소들을 정리해두고 사용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기타

제가 마지막까지 부족했던 것이 바로 시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시간이 초과되어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고 시계를 보는 연습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방법이 시계를 두개 차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볼 때 어려웠던 점은 면접을 할 때라고 가정하면 15분을 3분씩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데 정각에 긴바늘이 있지 않으면 한눈에 보고 계

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계는 정각에 맞춰두고 평가실에 들어가서 시작하면 시작버튼을 누르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또 하나의 시계는 현재 시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계로 사용하였습니다. 시간 맞추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2차 시험 전에 1,2,3번을 뽑으면 앞순서여서 점수를 짜게 준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뒷번호로 뽑기를 바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은 1번, 수업실연은 3번을 뽑게 되었습니다. 1번을 뽑았을 때 정말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고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었지만 최대한 자신있게,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는지, 웃는 인상으로 기억에 남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